

## 2022년 9월 부산MBC 시청자위원회 의견서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 <시사포커스 IN> 평가 : 심층취재와 지역 이슈 점검 중심의 구성이면 프로그램의 취지에 더 잘 맞을 듯함.

9월 1일 방송

★심층취재 : 지난해 5월 임시 개장한 해운대수목원 아직도 문제? 4년 전과 비교.  
침출수 발생/ 메탄가스 배출// 2025년 정식 개장..그러나 해운대 수목원은 이름 뿐.  
갖춰야 할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함/ 수목원의 이름에 걸맞은 화명 수목원과 비교/  
불거리가 부족해서 동물원 넣었다?

★뉴스 앤 이슈-지역 이슈 논의: 낙동강 녹조 창궐-독소 검출/ 정부의 수도권 비대화 정책/ 엑스포 유치

9월 15일 방송

클로징 멘트 : 부산은 엑스포가 필요하고 엑스포를 위해서는 부산시민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 과도한 개입

•대담 : 월드 엑스포 관련.. 무슨 프로그램인가? 캠페인성 코너로 끝!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 출연/ 등록 엑스포인 월드엑스포  
법령 제정 등 점검, 의원 친선 외교/ 대통령 특사로 중앙아시아 방문한 경험 이야기/  
BTS 10월 공연 홍보/ BTS 대체 복무/ 엑스포 유치 변수? - 가덕신공항 2030 개항  
문제-인접 도시 공항 이용, 2025 오사카 엑스포 개최하면 같은 대륙 유치? /'경제적  
인 효율이 큰 이벤트이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고??

★뉴스 앤 이슈-지역 이슈 논의: 한남노 태풍 대비/ 부산 부동산 문제/ 공공의료

부산시의원 민주당 서지연/ 국민의힘 이준호 출연하여 이슈 관련 의견 나누기.

-이상 기후로 다양한 형태의 기후 재난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 필요.

-서부산 의료원,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진행 과정 설명

• 2분 뉴스

■ 2030 월드엑스포 관련 보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8월 1일~9월 16일 한 달 반 동안 부산MBC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보도를 살펴 보니 단순 정보 대부분이었다. 엑스포가 부산과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었고, 시민에게 주는 특별한 정보 없이 유치  
일정 위주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최근 한국에 11년째 살며 활동하고 있는 영국 출신 프리랜서 기자(뉴욕타임즈, 더 가  
디언 등 우수 매체에 칼럼 기고하는 저널리스트)의 부산 엑스포 관련 인터뷰를 보았  
다. 그는 부산시가 61조 원의 엑스포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발표하자 대부분의 언

론이 이를 받아 썼다며 “부산엑스포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로 모든 언론이 '60조 원'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일본 오사카 엑스포의 기대 효과가 '20조 원'인데 부산이 60조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하지만 이것을 점검하는 언론은 없고 '엑스포 유치는 당연히 좋은 거지'라는 식의 기사만 양산되는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중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다.

대형 행사나 개발사업을 보도할 때 다양한 문제의식,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을 따져보는 노력도 기울여주길 바란다.

**8월 17일 1번 뉴스** ‘가덕도 신공항 빠진 엑스포, 사우디 역전할까’ 리포팅 보도

8월 26일 4번 뉴스 ‘부산엑스포 유치 계획서 확정 본격 일정 돌입’ 단신

8월 29일 1번 뉴스 ‘국회 엑스포 협력 약속…BTS 병역 특례 요청’ 리포팅 보도

8월 31일 4번 뉴스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외교 역량 집중”’ 리포팅 보도

9월 1일 3번 뉴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지원에 영호남 ‘맞손’’ 리포팅 보도

9월 4일 6번 뉴스 ‘박형준 시장 내일 출국…엑스포 유치 계획서 제출’ 단신

9월 7일 6번 뉴스 ‘정부 대표단,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계획서 제출’ 단신

**9월 12일 2번 뉴스** ‘사활 건 ‘엑스포 유치전’ 돌입, 경쟁도시 전략은’ 리포팅 보도

■ 부산MBC가 지역사회와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하고 있는 <라디오 시민세상>,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제작단과 함께 하고 있는 <생방송 부라보>의 ‘우리 동네 토크’,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뉴스 ‘지역 뉴스 공모전’이 그러하다. 특히 올해는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청년 저널리스트 양성 과정과 연계해 지역뉴스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시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부산MBC가 지역의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러한 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욱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 부산시가 <빅벙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역방송 3사 중 토론을 제외하고는 부산MBC가 유일하게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시정을 적극 감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소송을 건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한다. 물론 방송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점 지적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의 대표 공약을 검증하고, 반론권까지 보장하였으나 통상적인 반론 보도 형태를 뛰어넘은 무리한 요구에 이어 소송에 돌입한 것은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충분하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의 이번 소송을 우려하며, 혹여 지역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까 걱정하고 있다. 부산MBC와 <빅벙커> 제작진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작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비판과 감시 역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끝-